

부활절 네 번째 / 어린이 주일예배  
THE WORSHIP SERVICE OF 4<sup>TH</sup> SUNDAY OF EASTER

주후 2020년 5월 3일 오전 10시  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55장 “하나님의 크신 사랑” (새15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71 번 어린이주일(Children’s Sunday)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555 장 “세 번 아멘”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김강석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	<b>히(Hebrews) 8:1-13</b>	금종각 집사
설 교 Sermon	<b>“그 후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” (This Is The Covenant God Will Make)</b>	김일선 목사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봉 헌 Offerings	(특송: 윤희준 집사, 반주: 고혜정 집사)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53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새317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찬 송 Hymn	345 장 “주 하나님 늘 믿는 자”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\*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.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“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”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, 우리는 점점 더 높아지려고 했고,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더 많이 집중했습니다.

**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.”**

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,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며,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좇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 진정 소원하오니,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,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.

**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**  
(\*마 18:3-4)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.” (한글개역 **히8:10**)  
“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at time, declares the Lord. I w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and write them on their hearts. I will be their God, and they will be my people.” (NIV **Hebrews 8:10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5/3 (주일)	5/4 (월)	5/5 (화)	5/6 (수)	5/7 (목)	5/8 (금)	5/9 (토)
	민11	민12,13	민14	민15	민16	민17,18	민19
본문	시48	시49	시50	시51	시52-54	시55	시56,57
	사1	사2	사3,4	사5	사6	사7	사8:1-9:7
	히9	히10	히11	히12	히13	약1	약2

수/요/ 성/경/공/부

수요 성경공부(5/6수 오후730) “각 지파중 족장된 자 한 사람씩” (민13:1-3,25-33)

지난 주일(4/26) 말씀

“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”(히 7:11-25)

“불안은 우리 삶의 토대를 갉아먹는 쥐와 같다”라는 말이 있듯이,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가득한 현실에서,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린다고 여길 때, 우리는 쉽게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. 그러나, 오늘 본문은 “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”고 (분명히)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, “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”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며? (오늘)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?

1)첫째, “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”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좇으셨다는 의미이며(히7:16-17)이며, 2)둘째, 더 좋은 소망되신 예수님으로 인해, (우리가)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의미이며(히7:19), 3)셋째,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(히7:25). 즉,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, 그래서 항상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던 우리를,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속량하시고,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,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. 불안의 해독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사랑뿐입니다. 그러므로, 더 좋은 소망이 되시며,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,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